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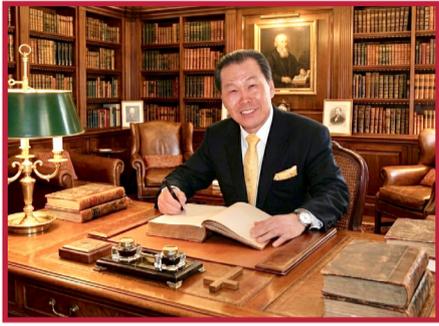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2월 22일 (제 1346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믿음이란?

전도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도로 되게 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고로 청각적인 감동보다 시각적인 감동이 큰 법,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불가능해.' 이런 일들을 되게 해서 보여주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는가?

이런 일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AI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신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며칠 굶은 사자가 있는 곳에 던져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나 다니엘은 살아나왔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이에 천사를 보내 미리 사자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이다. 다리오 왕이 그것을 실제로 봤다. 그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한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찌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단 6:26~27).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기도로 이뤄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칠 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다. 처참한 화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불속에서 춤을 추었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나왔다. 이를 본 느브갓네살 왕은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나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찌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단3:29)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단, 기도해야 일을 이루신다. 기도하라!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라.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변혁의 시기입니다. 지난 세기말 인터넷의 출현으로 시작된 정보혁명의 거대한 흐름이 이제 인류가 감당할 차원을 넘어서 불가항력의 쓰나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처음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차를 끌던 마부들이나 말발굽을 만들던 대장장이들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입지가 사라지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동차를 때려 부수는 등 시대적 변화에 온몸으로 저항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부품을 만들고 수리하는 직업군으로 변모 발전해갔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로봇 아틀라스가 선

를 우리 삶과 목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하고 실제 적용할 것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AI란 인간 지식의 총합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도구로 쓰면 되는 것이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알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배우는 데 게을리하지 말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라." 그런데 AI시대의 도래가 우리나라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사실상 20세기 후반 중국 제조업의 부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ASI(초인공지능)로 발전해갈 것인데, 그 기반이 되는 반도체 HBM(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GPU에 못지않게 더욱 확대될 것이라 합니다. GPU의 연산 속도뿐 아니라 엄청난 데이터양을 병목현상 없이 보내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HBM 시장의 7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다시 없을 역사적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우뚝 서서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가장 많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광경, 서울시청광장)

을 보이고, 추후 자동차 제작공장에 배치될 것이라는 소식에 공장 노동자들이 집단적 저항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금언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저항은 없을 수 없겠으나 그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스러져갈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우리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 무기력한 저항보다는 그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목사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AI(인공지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AI에 대한 교육을 받고 스스로 자료들을 찾아보며 연구하고 있다. 시대는 그리로 가고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제조업보다는 부가가치 사업에 몰두하였고, 오늘날 반도체부터 기초 생필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 정도라 합니다. 코로나 시절, 선진국들이 마스크나 진단키트를 만들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진국들의 제조업 붕괴가 낳은 비극이었지요. 그 시절 우리가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대량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대대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AI 파트너로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 AI기업의 CEO들이 대거 한국을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AI가 AGI(범용

해왔습니다. 북한의 김일성광장과 중국의 천안문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인류를 지구촌에서 탈출시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중심 세계하나되기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죠.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땅에는 절대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평화통일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꿈과 비전의 중심에 우리 예수중심교단이 있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미국 캔자스시티 목회자 세미나

* 날짜 : 3월 25일(수)~4월 3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43:18~19)



과거가 거울이 될지 언정 노예는 되지 말라

계곡 없는 산은 없듯, 흠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실패나 상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 과거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다면, 그것이 울무가 되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말뚝에 밧줄을 단단히 묶어 놓은 배와 같습니다. 그 배는 밀물이 되어 파도가 밀려와도 절대 너른 바다로 나갈 수 없듯,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풀어내야지요. 그러므로 과거가 거울이 될지 언정, 과거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베드로가 어린 비자 앞에서 스승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며 당당했던 베드로가 어린아이 앞에서 저 살겠다고 스승을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대역 죄인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베드로는 그 죄에 눌러 살았습니다. 예전처럼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지만, 아무 의욕도 없이 그저 그물만 던져놓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미래는 없었습니다. 마치 못해 사는 거였지요.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고기를 구워 허기를 채워주신 후에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세 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옵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요21:17). 이 말인즉, "제가 비록 죽을죄를 지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다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니 이제 죄의식을 벗어던지고 너른 대양으로 나가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밧줄이 풀린 베드로는 너른 대양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갑니다.

여섯 남자를 데리고 살던 여인이 과거에 사로잡혔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고,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발목이 붙들렸다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여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바울이 과거를 잘라내지 못했다면 전도자로서 새 일을 이

룰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8:1).

저 역시 과거를 들추자면 감히 하나님의 종이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잘 압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어떠한 과거든 다 잊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죄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것을. 이걸 제 신조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

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



총회장 이초석 목사

하심으
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미7:18~19).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히8:12). 더 말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손에 갇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눅9:62) 하시며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라 촉구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해 줍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하며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3:13~14).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일단 뒤엎고는 잊어버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과거를 잘라내라는 겁니다. 과거 때문에 주눅 들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또 과거로 인해 우쭐거리지도 말고 오직 꾀대, 즉 새로운 목표를 세워 달리라고 합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되새기며 새로움을 깨닫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과거를 거울삼을 필요는 있지요. 그러나 과거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하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

이라"(사43:18~19). '옛적 일', 즉 과거를 잘라내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총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처,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는데 그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예고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시매 그 아이가 심히 앓자, 다윗은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레 만에 죽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차마 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수군거림을 듣고 다윗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복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는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복들이 보기에 다윗의 행동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앓아

누워있을 때는 금식하고 난리더니, 죽었다니까 오히려 괜찬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여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삼하 12:22~23).

맞습니다. 다윗의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과거를 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나단이 책망할 때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더는 과거의 일을 되새김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솔로몬 같은 더 좋은 아들을 주사 위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히12:1) 했습니다. 경주를 하려면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아무것도 어깨에 메거나 들지 않고 달리고, 산 정상에 오르는 자도 최소한의 짐만 꾸리는 것이며, 수영선수들이 옷을 최대한 가벼운 재질로 만들고, 심지어는 몸의 솜털까지 미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상 위의 주자입니다. 그런데 철갑처럼 무거운 죄의 옷을 입고 어찌 경주하겠고, 한쪽 다리는 과거라는 말뚝에 묶어두고 무슨 경주를 하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그것들을 '당장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잊으라는 것입니다. 가끔 꺼내서 들춰보지도 말고, 아예 강그리 잊으라고 합니다. 그런 자가 완주할 수 있고,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넌다면 뗏목을 불살라버려라

2026년,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제까지는 과거입니다. 그것을 다 잊고 새로운 꿈을 향해 달리세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으니까요. 과거는 부도난 수표이니까요.

다시 아픈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갖지 않으려면 사슴을 쫓다가 토끼에게 맘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만 바라보며 달려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도 말고 꾀대만 바라보고 달리세요. 그러면 목표한 바에 이를 것이고, 분명히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기쁨지게 될 것이며, 당신으로 인해 당신의 주변이 기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영생에 이르는 길 ::

한반도와 세계 패권의 교차로

세계 GDP에서 중국의 비중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820년 농업화 시대에는 32.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산업화에 성공한 서구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된 1913년에는 8.9%로 감소하였고,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을 거친 이후인 1950년부터 개혁개방 직전인 1978년까지는 약 4.9%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 기준으로는 16.9%를 기록하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1945년 단일 국가로서 세계 GDP의 45%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위치를 점했습니다. 이후 소련 붕괴와 IT 버블을 거치며 30% 수준을 유지했고, 2024년 말 기준으로는 26.3%를 기록하며 여전히 단일 국가로서는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미국은 2위인 중국과의 격차가 10%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체제와 인프라 측면에서 일부는 중국이 여타 민주주의 국가보다 우월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부분 연대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대중국 견제와 역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 충돌이나 냉전식 대립이 아닌, 하버드 법대 교수 노아 펠드만(Noah Feldman)이 저서에서 언급한 '량전(凉戰, cool war)'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마오쩌둥(毛澤東)의 『지구전(持久戰)』을 근거로

“변타변담, 변담변타(邊打邊談, 邊談邊打 : 싸우면서(打) 협상하고(談), 협상하면서(談) 싸운다(打)” 전략을 구사하며, 반도체 규제 · 무역 분쟁 · 사이버 해킹 · 기술 표준 등 소프트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대내적으로 행정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불필요한 전쟁 개입을 줄여 국가 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 적극 협력하여 동북아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유럽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 변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 이전부터 형성된 유럽의 전통적 지배층, 그들과 연계된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의 기득권층, 그리고 군산복합체와 전통적 금융세력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전쟁과 분쟁을 유발해왔습니다. 이에 맞서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다방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현 행정부는 장부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고 다소 비굴해 보일 수 있으나, 한반도가 전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며, 총회장 목사님 이하 전 교역자와 성도가 혼연일체로 기도한 결과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임윤석

:: 빛과 소금 ::

새벽기도

내가 속한 청장년부에서는 오전 6시~7시까지 ZOOM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다.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 음성을 틀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들고 목사님의 목소리에 힘을 얻기도 한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정해진 큐티 진행자들이 자신의 묵상을 나누는데, 때론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기도 하고, 서로 공감하며 응원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는 대학생 때부터 새벽기도에 관한 간증이 참 많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지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고, 그 계기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 같다.

사실 혼자 새벽기도를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밤낮이 바뀌고, 생활 리듬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공감하겠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저녁 시간 또한 온전히 내 시간이 아니다. 저녁에는 변수도 많고, 아이들을 재우다가 같이 잠드는

경우도 허다해 기도를 놓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청장년부에서 새벽기도를 ZOO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담당 목사님께서 지교회로 가지면서 새벽기도 오픈을 내가 맡게 되었고, 올해로 4년 차가 되었다. 이제는 새벽기도가 나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아 공동체 식구들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좀 더 특별한 것 같다. 아이 둘을 키우는 나에게 이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의 심정을 가장 솔직하게 아릴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또 기도하다 보면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고,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다. 그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선물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2026년!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해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자!

송지혜

꿈은 이루어진다

어릴 적 저의 꿈은 소설가였습니다. 재미있는 소설책 몇 권에 심취하고 나니 저 또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주최하는 글짓기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고 믿었던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회장에 들어가선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주제에 맞게 논리적으로 써야 하는데 체계적으로 쓰는 훈련이 되어있지 않아서 제대로 써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크게 실망하고 소설가라는 꿈은 접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되어 매주 나오는 교회 신문을 읽으면서 늘 품었던 바람이 있었습니다. 나도 신문에 기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랬습니다. 지인에게 살짝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저를 신문 편집실에 추천했더군요. 얼

떨결에 글을 제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문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신문에 글이 실리던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단 예수중심교회 신문 한권에 제가 쓴 작은 이야기가 실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독자가 되어 읽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나 이문열 같은 유명한 소설가는 아니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기자가 되어 생명을 주는 글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은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소설가 이상의 꿈을 이룬 것 아닐까요?

철부지 중학생의 작은 꿈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이 가진 꿈도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여 반드시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최성경 전도사



:: 빛과 소금 ::

:: 낮은 울타리 ::

날 보호하시는 하나님

몇 주 전 중요한 등기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등기가 도착할 예정이니 집에 언제쯤 있느냐는 전화였습니다. 그 등기는 도착해야 하는 날 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오지 않고 있었던 거라 반가운 마음에 날짜를 당장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해 보니 도착 시간이 오후 2~3시 정도이고, 다른 시간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안 된다고 말했고, 그러면 온라인 수령을 원하냐고 상대방이 물어, 온라인 수령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웹사이트 주소에 들어가 저의 주민번호로 조회하여 등기를 보고 관련된 내용을 보며 답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그걸 확인하다 보니 벌써 10분 정도를 통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갑자기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입에서 '이거 보이시죠?'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방문 수령과 온라인 수령 중 온라인을 선택한 건 본인 아니시냐' 하더니 계속된 의심에 전화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수법이 아주 치밀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등기를 받아야 하는 것과 등기의 내용까지 파악해서 이렇게 전화가 올 줄은 예상도 못했던 터라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최근 적금이 만기 돼 통장에 꽤 큰돈이 있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조치를 취하는데 다시 그 상황이 생각이 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보이시죠? 물어볼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 입으로 그걸 말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등기를 받아 일을 얼른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대신 저를 보호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보호하심이 분명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나의 삶을 너무 내가 이끌며 가려고 했다면, 이 보호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조금 더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책임지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장수정

300원의 복음, 지금도 살아 일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전도사와 딸 성화

저는 유년 시절을 목포에서 배로 두 시간 반이 걸리는 도서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없던 가난한 시절이었는데, 유일한 즐거움은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유행가를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 어느 날, 마루 위에 놓여 있던 하얀색 카세트테이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예루살렘교회 이초석 목사'. 그 테이프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당시 유행가를 녹음할 빈 카세트테이프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300원짜리 테이프 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아, 그게 바로 나왔구나...' 그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다시 한 번 밀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4년, 군 제대 후 서울로 올라왔을 때의 일입니다. 거처를 구하지 못해 막막해하던 중, 군 입대 전 알던 형님 한 분이 한 달 동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방문에 붙어 있던 교패 하나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예루살렘교회'.

어릴 적 그 하얀 테이프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웬지 모를 친근함 속에 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후 집으로 찾아온 청년들의 전도를 통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드러진 예배 중, 총회장 목사님의 축사 기도 시간에 오랫동안 앓고 있던 위장병이 온몸이 요동치듯 귀신이 떠난 후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고,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으로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리라"(이사야 58:9)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자,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삶은 늘 제자리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IMF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해외에서 생산 설비를 수입하는 무역회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에서 배운 영업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너무 잘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자 '영업'이라는 명분 아래 술과 세상 쾌락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제 영혼은 날마다 메말라 갔고, 가정도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으며, 신앙은 어느새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7년 8월 어느 새벽, 술에 취해 잠든 제 꿈속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너, 신학교 갔냐?" "아니요..." 그러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오도록 해." 그리고 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시편 32:8) 아침에 일어나 이시대 목사님과 상당한

후, 잘 나가던 사업을 뒤로하고 즉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지금까지 전도사로 15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셨습니다. 300원짜리 말씀 테이프를 저를 찾으셨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 거처를 예비하셨으며, 방황할 때는 꿈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길을 돌려 세워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잠언 19:21)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총회장 목사님께서 오지까지 말씀 테이프를 보내며 복음을 전하셨던 그 뜻을 따라 2018년 8월부터 서울역 노숙자와 인근 쪽방촌으로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기도처와 88체육관에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 물질적인 어려움이 늘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노량진 교육관에서 성전 건축 기도 모임을 시작하며, "매일 천 원씩 건축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구제 사역에 전념하다 보니 쉽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라도 줄여 보자.' 그렇게 매일 커피 한 잔 값을 모아 미국 주식에 소액 투자를 시작했고, 그 결과 연말에 200퍼센트가 넘는 수익을 얻게 되어 작년 12월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수천만원, 수억 원을 드리는 분들에 비하면 부끄럽다는 마음이 들어 무명으로 조용히 드릴까 했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따라 대학부에 다니는 둘째 딸과 함께 목사님을 찾아뵙고, 제가 받은 은혜와 믿음이 딸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잠언 20:7) 믿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찾으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40여 년 전, 총회장 목사님께서 전 재산과 아들들의 저금통까지 깨뜨리며 흘러보내셨던 300원짜리 전도용 말씀 테이프는 지금 와서 보니 저와 제 가족, 완고하셨지만 치매 진단 후 예수님을 영접하신 저의 아버지와 서울역 쪽방촌에서 매일 예배드리시는 용산 기도처 가족들, 매주 금요일, 멀리는 의정부에서, 남한산성에서까지 기도처로 찾아와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두 시간 듣고 예배 한 시간을 드리고 돌아가시는 수많은 어르신들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행통하리라"(이사야 55:11) 이 모든 열매는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열정의 산물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하신다."라고 하신 설교 말씀을 믿기에 지금도 저는 망설임 없이 힘 들고 지친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쪽방촌에 매일 예배 모임을 세우고, 저녁 노량진 기도 모임과 성경통독, 성경필사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금주헌상을 이겨내고 있으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합니다. 더불어 정신지체 형제가 은혜의 눈물로 찬송을 부르며 기도처의 찬송 인도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멋스럽고 내세울 만한 목회는 아니지만,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시는 총회장 목사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길은 이것뿐이라 확신하기에,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 목사님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잘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용산교구 김현욱 전도사

:: 귀를 기울이세요 ::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높이 16m, 길이 155m, 폭 26m 규모의 건물 7층 높이, 미식 축구장 면적의 1.5 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목재 건축물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켄터키주의 인기 있는 관광지 1위 '노아의 방주'다. 이는 윌리엄스타운에 위치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거대한 테마파크다. 창조과학단체 앤서스인제네시스(AiG) 설립자이자 노아의 방주를 제작한 창조박물관장 켄 햄(Ken Ham)목사는, "이 건축물은 빠르게 변하는 세대에 하

나님의 진리를 상기시키는 존재입니다. 방문자들에게 노아의 방주와 홍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역사적 사실 등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고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방주의 안은 상당히 세밀하게 구현되어 있었는데,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들의 공간적 분리, 식량과 물을 저장하던 항아리 및 자루들, 식물들을 재배하던 공간들, 동물들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시스템과 환기구 등도 공학적으로 우수하였다. 또한 재미있는 요소는 방주 안에서 노아

와 가족들이 예배하는 모습과 노아의 가족들의 생활공간(침실, 거실, 부엌), 대장간과 목공소를 재현하였고, 방주의 유일한 한 개의 문을 통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이 방주와 더불어 창조박물관도 함께 전시되고 있는데, 구석기, 신석기 등 진화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 '창조론'에 맞추어 창조, 타락, 대홍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구 종말 등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이 방주 테마파크는 2016년 7월 개

장한 이래 연간 10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고, 전체 관람객의 30% 이상이 비기독교 신자이다. 그중 10만 명이상이 방주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 성경은 역사적 사실임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구원의 문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안 믿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 다시 성경을 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자.

송현혜 생도